

보도 일시	2022. 8. 24.(수) 09:00	배포 일시	2022. 8. 24.(수) 09:00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책임자	과장 배양희 (044-203-2751)
		담당자	사무관 이소진 (044-203-2749)

##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22-2023’, 문자와 소리의 다양한 관계 탐색한다

- 9. 2.~4. 문화역서울284, ‘타이포잔치 2023’ 사전 행사로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과 함께 9월 2일(금)부터 4일(일)까지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22-2023(이하 타이포잔치 사이사이)’를 열어 문자와 소리의 다양한 관계를 탐색한다.

창작자 9명, ‘사물화된 소리, 신체화된 문자’를 주제로 강연·연수회·공연 진행

‘타이포잔치 사이사이’는 내년 9월~10월에 열리는 본전시 ‘타이포잔치 2023: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의 사전 행사다.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학·음악·시각예술 분야 창작자 9명이 ‘사물화된 소리, 신체화된 문자’를 주제로 강연, 연수회(워크숍), 공연 등을 펼친다.

▲ 프랑스 디자이너 알렉스 발지우\* 씨는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강연과 연수회를, ▲ 음악 비평가 신예슬 씨는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음악 그래픽 기보를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강연을 진행한다. ▲ 김민정(시인), 이수성(성우 지망생), 신인아(그래픽 디자이너), 채희준(서체 디자이너), 이랑(아티스트), 서경수(음악가) 씨 등 창작자 6명은 공연 <문장 부호 이어 부르기>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각각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영역에서 문장 부호를 다뤄 온 경험을 소개한다.

\* 프랑스 디자인 연구자. 그래픽디자인과 문학의 맥락을 연구, 방대한 아카이브 작업 수행, 『구체시 속의 여성(Women in Concrete Poetry): 1959-1979』의 공동 편집자임.

특히 행사장 공간을 디자이너 국형걸 씨의 ‘팰릿스케이프(Palletscape)\*’로 꾸며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친환경 방식을 도모한다.

\* 팰릿스케이프: 지게차로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적재하기 위해 받침대로 사용하는 산업용 자재인 팰릿(Pallet)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즉흥적인 공간을 구성함. 팰릿 자체가 친환경적 재활용 소재이고 행사 후에는 다시 산업 현장으로 돌아가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디자인임.

예술 감독을 맡은 박연주\* 디자이너는 “소리가 받아쓰기·타이핑·인쇄 등의 과정을 거쳐 시각화·사물화되고, 문자가 낭독·공연 등의 행위를 통해 신체화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자와 소리의 다양한 관계를 탐색하며 타이포그래피가 ‘연결 짓는 예술’임을 선보인다.”라고 밝혔다.

\* 박연주: 혜적프레스 대표, 국제그래픽연맹(AGI) 회원으로 활동 중, 2022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대한출판문화협회 주관)’ 수상

이번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typojanchi.org)과 누리소통망(www.instagram.com/typojanchi)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22-2023 포스터
- 2.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22-2023 개요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책임자	과장 배양희 (044-203-2751)
		담당자	사무관 이소진 (044-203-2749)
<공동>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역서울284팀	책임자	팀장 유형근 (02-3407-3509)





□ 행사 개요

- (행사명)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22-2023
- (행사기간) 2022. 9. 2.(금) ~ 9. 4.(일) 3일간
- (행사장소) 문화역서울284 RTO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 (협력) 국립한글박물관,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 (워킹그룹) 예술 감독: 박연주 / 큐레이터: 신해옥, 여혜진, 전유니 / 코디네이터: 전하은
- (주제) 사물화된 소리, 신체화된 문자(타이포그래피와 소리)
- (내용)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사전행사로, 강연/워크숍/공연 개최
  - 문학과 음악을 중심으로 문자와 소리의 관계, 그 역사와 배경을 함께 읽고 여러 관점을 공유

□ 세부 구성

일시	주요 행사 내용
[강연 1]  9.2 (금) 오후 7시	제목. 음n음o음d음e음s음 연사. 알렉스 발지우(그래픽 디자이너) 진행. 신해옥(타이포잔치 2023 큐레이터)  문학·출판·그래픽 디자인의 교차점에서 방대한 리서치와 아카이브 작업을 해 온 연사를 초대해 문학, 특히 구체시·소리 시·시각 시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실험적이고 선구적인 예술가들의 작품까지 넘나들며 시와 타이포그래피의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지 살펴본다.
[워크숍]  9.3 (토) 오전 10시	제목. 시s시o시u시n시d시i시n시g시 연사. 알렉스 발지우(그래픽 디자이너) 진행. 신해옥(타이포잔치 2023 큐레이터)  워크숍 참가자들은 도시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소리와 에너지 흐름을 노래한 안네아 록우드의 소리 시를 지도 삼아 문화역서울284 주변을 산책하며 소리와 문자를 채집하고, 타자기나 복사기 등을 활용해 채집한 재료들을 감각적으로 번역한 뒤 모두의 결과물을 모아 '타이포 성가(typochant)'를 완성한다.

일시	주요 행사 내용
<p>[강연 2]</p> <p>9.3 (토) 오후 4시</p>	<p><b>제목. 연주할 수 없는 악보, 보기 위한 음악</b>  <b>연사. 신예슬(음악 비평가)</b>  <b>대화. 신동혁(그래픽 디자이너)</b>  <b>진행. 여혜진(타이포잔치 2023 큐레이터)</b></p> <p>악보는 소리를 불러내는 기호로 가득 차 있지만, 어떤 악보는 그로부터 벗어나 다른 길로 향한다. 그들은 기호를 읽는 대신 눈으로 보기를, 그리고 소리 내는 대신 머릿속에서 상상하기를 요청한다. 이 강연은 '보는 음악 혹은 읽는 음악'이라는 주제어 아래 음악 비평가와 함께 그래픽 기호를 매개로 악보만이 만들 수 있었던 음악을 만난다. 강연 후 디자이너 신동혁이 패널로 참여해 그래픽 디자인의 시각화 방식이 음악에서 악보를 매개로 연주하는 것과 어떻게 같고 또 다른지 풍부한 사례를 제시하며 타이포그래피와 음악의 접점에서 대화를 나눈다.</p>
<p>[공연]</p> <p>9.4 (일) 오후 4시</p>	<p><b>제목. 문장 부호 이어 부르기</b>  <b>참여. 김민정, 이수성, 신인아, 채희준, 이랑, 서경수</b></p> <p>'문장 부호 이어 부르기'는 여섯 명의 발표자가 등장하지만, 토크라기보다는 공연에 가깝다. 편집자·성우 지망생·디자이너·아티스트·연주자 등 여섯 명의 창작자가 각각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영역에서 '문장 부호', 즉 문자와 달리 소릿값이 없는 기호이지만 문장과 악보 속에서 작품에 시간성과 청각성을 부여하며 그 자체로서 표현력을 획득하기도 하는 문장 부호에 관해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한다.</p> <p><b>1. 김민정 (시인/편집자)</b>  문장 부호를 쓰고 지움에 있어 그간 어떻게 작업을 해왔는지 다양한 분야별 도서의 실례를 통해 그 차이와 변화무쌍한 과정을 좇아간다. 그 시간 속에서 저마다 알고 있고 쓰고 있는 문장 부호들을 스스로 다시금 바라보게 유도한다.</p> <p><b>2. 이수성 (성우 지망생)</b>  성우들은 대본을 받으면 문장 부호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다. 더빙은 화면에 입을 맞추는 작업이라 고민이 없지만, 오디오 드라마라면 문장 부호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대본에 느낌표가 일곱 개쯤 찍혀 있다면 그건 소리를 크게 하라는 뜻일까, 아니면 내적 에너지에 관한 정보일까? 대사별로 상이한 말줄임표의 개수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성우 지망생과 함께 문장 부호를 구술 전달의 기호로서 해석해 본다.</p> <p><b>3. 신인아 (그래픽 디자이너)</b>  영화감독 라울 펙은 다큐멘터리 &lt;야만의 역사(2021)&gt;에서 '역사적 서사는 모두 침묵과 뒤엉켜 있다.'라고 말했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듣기를, 언어를, 이해를, 세계를 요구한다. 연사는 그</p>

일시	주요 행사 내용
	<p>래픽 디자인의 서사에서 침묵을 해체해 온 여러 사례를 공유하며 들리지 않는 목소리, 즉 줄임표로 처리되는 말에 관해 이야기한다.</p> <p><b>4. 채희준</b> (서체 디자이너)          디지털 조판 시스템에서 문장 부호는 종종 능동적인 타이포그래피 재료로 활용된다. 디자이너가 텍스트를 다룰 때 고려하는 문장 부호의 타이포그래피적 역할과 함께, 글꼴 제작자와 사용자가 만나는 접경지대에서 문장 부호가 만들어내는 시각적 논의를 이야기 한다.</p> <p><b>5. 이랑</b> (아티스트)          이랑의 노래 &lt;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다&gt;의 가사 창작 과정을 시청각 자료로 복기하면서 가사지 뒷면의 쉼표, 줄표, 빗금에 관해 이야기한다. “가사는 시와 비슷하다. 가사에는 문장 부호가 거의 없지만 대신 호흡에 맞춰 줄바꿈을 한다. 공연을 할 때 긴장하면 숨이 짧아져서 가사를 만들 때 정해 둔 숨구멍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 때는 글자 수를 잘 맞춰야 한다.”</p> <p><b>6. 서경수</b> (음악가)          드럼은 두드려 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가장 원초적인 악기다. 밴드에서 드럼은 흔히 멜로디 악기를 보조한다고 여겨지지만, 리듬을 주도하는 드럼의 박자가 흔들리면 연주 전체가 흔들린다. 바로 그런 점에서 드럼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맥락을 부여하고 서술의 리듬을 관장하는 문장 부호와 닮아있다. &lt;문장 부호 이어말하기&gt;의 피날레는 때때로 모호하고 부정확한 언어 대신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언어가 되지 못하는 음악, 그중에서도 재즈 드럼의 독백으로 《사이사이》 행사장의 공기를 서술한다.</p>

□ **공간 전경(팔릿스케이프, Palletscape)**

